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종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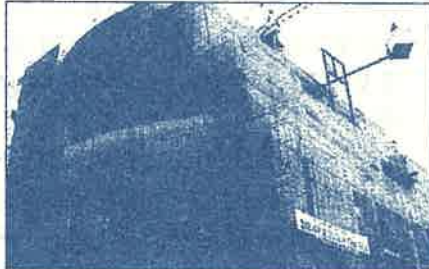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오늘 건축헌금 드리는 주일

### 기도의 벽돌을 쌓은 결실로



▲ 1998. 10. 10 일 시작예배



▲ 2000. 8. 11 타설공사 마감된 현장



▲ 2000. 12. 25 완공될 교회

서울교회 새성전 건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온 성도의 기도와 관심을 요구하셨다.

1995. 9. 7 강남구 대치동 210번지의 대지 821평을 새성전 부지로 매입한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있고 아담한 공원이 교회 부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충분한 공간확보가 제공되는 유익함을 갖게 되었다.

1998년 8월 8일 설계를 맡은 정림건축이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는데 지하 3층 지

상 8층의 4,500평의 면적으로 도시화 된 환경에 적합한 교회, 자연광을 최대한 살려 밝은 빛을 밝히므로 영광과 은혜로운 교회,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는 일곱 축대의 교회,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으뜸의 교회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3,12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본당을 비롯한 기능별 세부 설계를 갖추었다.

98. 10. 10 마침내 기공예배를 드리고 성전건축의 첫삽을 뜨므로 역사적인 대치동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을 맞이하였다. 온 성도의 정성어린 헌금과 끝없는 기도에 힘입어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

의 철근공사와 지붕 씌우기 공사가 2000. 8. 11 완료 되었다.

2000. 12. 25 입당을 앞두고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하여 오늘 I, II, III부 예배시간에 건축헌금을 드리기로 하였다. 이번 건축헌금은 재산의 십일조를 드리는 각오와 결단이고 주님의 교회를 내몸같이 사랑하는 고백이 될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성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체험이 계속 될 것을 확신한다. 9월 6일부터 8일까지 건축을 위한 바자가 진행됩니다.

## 2000 열린 바자 기증품 접수내역(9월1일 현재)

| 기 증 품 명   | 기증자(교구)   | 기 증 품 명                | 기증자(교구)        |
|---|-----------|------------------------|----------------|
| 카메라 15대, 청소기 1점, LG가전제품   | 오정수(3교구)  | 신발 2켤레, 옷 6벌           | 박정섭(4교구)       |
| 화장품 일체  | 신용식(10교구) | 양말 500족                | 정병무(3교구)       |
| 보석세척제, 옥 맛사지  | 우유명(6교구)  | 남성용 실키팬터 600전, LG빨통 1점 | 박철훈(11교구)      |
| 옷(청바지 외)  | 남미희(8교구)  | 순창고추장 100통             | 백정순(10교구)      |
| 여자기구 5켤레, 핸드백 4점, 여성의류(바지 13벌, 홈웨어 5벌, 브라우스 10벌, 투피스 4벌의 다수의 품목)                                  | 김복순(4교구)  | 마늘 500집                | 임훈규(4교구)       |
| 핑크코트 1벌, 여자코트 1벌, 스키(男) 1점  | 신순우       | 엔진오일 500만원 상당          | 김종운, 김혜영(11교구) |
| 양복 3벌, 코트 3벌, 스웨타 10벌, 여성정장 3벌, 여름티 21벌, 모자 10개, 여자밍크 1벌, 밍크 1벌, 금목걸이, 반지, 팔찌, 세계비디오테이프 3, 가방(배낭) | 홍승자(2교구)  | 까나리액젓 100통             | 선연자(12교구)      |
| 가죽점퍼 2점   | 원복순(2교구)  | 게르마늄 목욕수               | 황정욱(2교구)       |
| 화장품 셋트  | 김경희(12교구) | 슬리퍼 100족, 골프공 24Box    | 이강인(11교구)      |
| 옷 3벌  | 임인숙(3교구)  | T-셔츠 200벌              | 정연택(11교구)      |
| 보온물통, 쟁반 커피잔, 이젤, 설탕, 크림기, 어린이용 그릇  | 김경희(12교구) | Y-셔츠 1500벌             | 허영수(1교구)       |
|   | 나미용(12교구) | 맞춤양복 10벌               | 이동만(9교구)       |
|   | 최봉애(2교구)  | 사골(판매전체)               | 이관규(9교구)       |

(다음호에 계속)



# 위로하라 내 백성을

성경 : 이사야 40장 1~5절



이종운 목사

\*\*\*

이사야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1~35장)과 구원(40~66장), 그리고 중간에 역사적 기록(36~39장)이 전환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심판의 엄한 선언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격려가 따르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많은 비평주의 학자들은 40~55장을 제 2 이사야(Duetro Isaiah), 56~66장을 제 3 이사야(Trito Isaiah)라고 하여 제 2 이사야는 메테파사 고레스 왕 이후의 시기로 돌리고 제 3 이사야는 귀환기의 에스라 이전 시기의 작품으로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받아들일 수 학설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마 3:3). 이것은 본문 3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3:3에서 인용한 것으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1.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는 죄값으로 도탄 중에 빠진 백성이라도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해야 합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Targum 성경에서는 “너희 선지자들아 내 백성에 대한 위로를 예언하라”고 했고 70인역 성경에서는 “너희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의 심중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백성을 버리시거나 고통 중에 있게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호 1:9, 사 6:9). 그것은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는 히브리어로 ‘요멜’입니다. 이 말은 ‘너희 하나님이 장차 말

씀하실 것인데’라고 번역됩니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또는 먼 장래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도록 말하며”(2절). 이것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과 양심과 감정에 합당한 말을 하여 저들의 마음이 감동 감화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과제는 책망만 하는 것 보다 위로와 용기를 주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강세요법으로 위로를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복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가 되시어 위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음에 평안과 양심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시며 상한 영혼에 치료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 (1) 위로의 조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죄를 없애야 하며 지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값대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의 매를 감수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안위와 위로는 옵니다.

### (2) 위로의 내용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2절). 노역은 ‘강요된 고생’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간 동안 받은 고생을 말합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2절). 형벌은 부채에 대한 채무와 같습니다. 따라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위로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2절). 합당한 고난,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시작된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옵니다.

### (3) 위로의 방법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으로 직접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절망 중에 있는 이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메시아의 오심은 전인류에게주는 최대의 위로며 복음입니다.

### (4) 위로의 결과

위로의 직접적 결과는 평강과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영혼이 만족케 되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회복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바치게 되고, 열매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 2. 위로자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본문 3~5절 말씀은 세계 요한의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눅 2:4~5).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의 구원에 참여할 자들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두우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4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자들은 골짜기 같은 음흉한 마음을 없애야 하고, 산이나 언덕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으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르지 않은 마음과 모든 험한 곳, 즉 고개와 같은 순조롭지 못한, 까다롭고 강박한 심리도 반듯하게 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임재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위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분을 모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그 크신 위로를 받고 누리며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8위 23일, 당회장 목사님의 차녀 미영양의 결혼식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예배당 건축이 끝나고 하리는 목사님의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본인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신 Korean Foundation에서 받은 장학금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였습니다.

남들 다 하는 예단 혼수품도 일체하지 않아 형제들은 침대하나만이라도 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사모님은 물론 본인도 평소에 쓰던 것을 그대로 써도 부족하지 않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건축을 위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바치는데 하시면서... 그렇게 올린 결혼식은 기도와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된 경건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우리 일행은 독일에 파이프 오르겐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5대째 내려오는 이 회사는 부자간에 함께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공장 내에 그 가정집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최첨단의 기술인 컴퓨터가 하는 반면 오르간은 역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조부님 그러니까

**한푼이 아쉬운  
결혼자금도  
건축헌금으로 드리다.**

오정수 장로(건축위원장)

고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란에 잠시 들려 미영양의 학회 발표(ethnomusicology)를 참석하였는데 그 내용이 그날 가장 우수하였고 준비도 잘 되어 있어 많은 박수와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제가 켄서리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미영양 내외는 서울교회 내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축하금 전액을 건축 헌금으로 도로 받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조금 넘었던 이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처럼 느낄 수 있었고 또 내 집, 내 교회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야무진 신세대 "이태훈 전도사님"과

이운진 권사(4교구)

막바지 여름 빗줄기를 헤치고 3주전 우리 교회에 오신 이태훈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1970년 생의 미혼이신 전도사님은 1994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올 해 5월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M. Div.(목회학 석사)을 취득하셨다.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남동생 1명이 있으며 중 2때 부터 이미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여 학창시절에 진로 문제로 고민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올 해 대학원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쉬 후 학업을 계속하기로 작정하던 중 부친의 소개로 본 교회에서 1년간 인턴쉽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 Q "서울교회에서 받은 인상은?"

A 첫째, 오자마자 농촌전도대를 따라 가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이었고, 둘째로는 교역자들께서 설새없이 많은 사역을 담당하여 교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셋째로 위임목사님의 풍성한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 Q "농촌전도대원들이 전도사님의 친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한 은사라도 받으셨는지요?"

A 어릴 때부터 찬양대에서 봉사를 했는데 중학교 때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고 음이 나오질 않아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앞으로 가요는 부르지 않고 찬송만 부르겠으니 제 목소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응답하시어 낮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찬양을 즐겨 부르게 됐죠. 지나고 보니 그때가 변성기였어요 그 후 가요를 불렀다가 크게 아파 드러지게 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더군요.

미국에서 '솔리스트 앙상블'에 입단하게 되어 거기서 뛰어난 분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성악을 배우게 되었고 나름대로 방법도 찾아서 제게 맞는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저 자신입니다.

### Q "앞으로의 목회 비전은?"

A '온전한 자유'를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성도님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도록 돕는 목회를 펼치고 싶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서울교회 교역자님들이 실천하고 계신 Self Training을 성실히 배우고 풍성한 목회 비전과 아이디어를 통해 좁은 목회관을 넓혀 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야무진 신세대 전도사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꿈들이 우리교회에서 1년동안 많은 결실 맺기를 기도해 본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부터 9시까지 장신대 대학원에서 한학기 강의를 한다. 7일에는 총회 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참가하고 8일에는 전경련 조천 모임에서 설교한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에는 한기총 세미나를 인도했다.
- 이상진 목사(사랑부 지도)는 8월 30일자로 우리교회를 사임했다. 이 목사는 한기총 기독교 교도소 추진을 담당하는 국장의 일을 담당케 되었다. 한편, 이성득 목사가 사랑부 부를, 이태훈 전도사가 고등부 지도로 각각 임명 되었다.
- 박철훈 장로는 지난 8.19일 개최된 한국기독선업인회 제27차 전국대회에서 지회육성 공로상을 수상하고 8. 23일 전국남선교연합회 창립76주년 기념 전국대회에서 모범 회원상을 수상하다.
- 백영희 권사(1교구)는 우산꽃이(1000명 분)를 구입하여 교회에 기증하다.
- 정동호 집사(후생약국 경영)는 개포동 공무원 연금매장 2층으로 확장 이전 개업하다.(445-3737)
- 박태선 집사, 김조일 집사 이사(5교구)\ 안양 벽산 은하수 아파트(031-383-9079)
- 선우동성 집사, 정미화 성도 이사(7교구)\ 원효로 리버힐 삼성아파트(706-9479)

# 강풍에도 남아 있는 가지처럼

정병무 장로(3교구)

추석명절만 되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되는 이유가 있다. 고향가는 길이 걱정되어 서가 아니고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손님 때문이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석을 코앞에 두고 프라피온이라는 악명의 태풍이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을 강타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남겨놓았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면서 가로수의 나무가지와 잎새들이 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꺾어지고 떨어진 모습을 보면

서 자연의 힘과 위력앞에 무슨 방패가 될까 생각해 보게된다. 무질서하게 흐트러진 신작로와 거리모습에서 쓰러진자와 남아있는 자의 형상이 떠오르게 되었다.

반석위에 집을 짓지 못한자는 여지없이 폐허를 경험하게 되지만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위에 집을 지은 어떤 광풍에도 더욱 돋보이고 윤희나는 결과만 있을 뿐임을 말이다. 새벽거리의 쓸쓸한스러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더욱 간절해졌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넘어서 폭풍을 만났을 때 포도나무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택함받아 구원에 이르렀고 영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달려가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을 뿐이다. 다만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므로 회개와 자복이 요구되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기를 바라는 마음 용솨음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태풍은 언제나 오는 손님이지만 그것을 이길 만한 준비만 되어있으면 무엇이 문제이며 걱정이겠는가. 든든한 뿌리로 버팀이 되며 강풍에도 힘있게 견뎌보고자 오늘도 새벽을 가르며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 감사의 마음과 믿음이 단단하여지길 기도하며...



송상준(6교구)

1999년 10월말,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의 위암선고는 우리 가족 모두를 절망에 빠지게 하였다.

30년이 넘도록 불심으로 살아오신 어머님도 흔들리고 계셨고, 나 역시 종교없이 살아온 삶이라 눈앞에 다가온 큰 시련에 어쩔도리가 없었다.

그런 하루하루의 불안한 시간은 넷째누나를 비롯한 박철훈 장로님 가족과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절실하고도 간절한 기도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하였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수술하기 일주일 전, 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을 믿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것이 쉬운 결정이 아

니셨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위를 모두 절개하셔야 되고, 나이가 있으시기에 회복도 그리 쉽지는 않다고 의사들은 말했다.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수술 후, 역사 아버지에게는 끝없는 고통이 시작되었고, 가족들은 하루 하루를 불안감과 눈물로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믿었다. 그리고 절실하게 기도했다.

중환자실에서 여러번의 고비와 끊임없이 생명의 끈을 잡고 두손모아 기도하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을 모르셨던 어머니의 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름이 간절하셨고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께 더욱 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한 시간동안 아버지의 회복은 날로 좋아지셨고, 어느 덧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다. 주위의 모든 분들께서 "이것은 기적이요, 하

나님의 축복입니다"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앞으로 우리 가족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중은 목사님과 고경선 목사님을 비롯하여 서울교회의 모든 목사님, 아버지의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임선철 집사, 이영주 집사 가정

### ☑ 건축현장 방문팀

: 대학부 - 4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 ■ 이중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건축헌금 바칠 수 있도록
2. 건축 바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4.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 일<br>예 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
|            | III부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5시     |
| 수 요<br>예 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9시        |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 교외약도

